

#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-

## 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.

## 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10월 26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\*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4건과 7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.

\* (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) 멸치 4건, 전갱이 4건, 갈치 4건, 황다랑어 3건, 연어 2건 등

□ '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'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시료가 확보된 경북 영덕군 소재 양식장 1건, 전남 목포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48건을 선정하였고, 238건을 완료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□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
○ 10월 2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0건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
□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
- 지난 브리핑 이후,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, 금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9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□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- 10월 26일 기준,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·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\* 10월 3~4주차(10.16~10.27)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6개소 분석 완료

□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- 지난 브리핑 이후, 남동해역 1개 지점, 남중해역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.
- 세슘134는 리터당 0.069 베크렐 미만에서 0.085 베크렐 미만이고, 세슘137은 리터당 0.076베크렐 미만에서 0.088 베크렐 미만이며, 삼중수소는 리터당 6.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.

\* ( $^{134}\text{Cs}$ ) <0.069~<0.085 Bq/L, ( $^{137}\text{Cs}$ ) <0.076~<0.088Bq/L, ( $^3\text{H}$ ) <6.8

-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,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'안전'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

#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

- 브리퍼 :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-

## < 1. 인사말씀 >

□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.

## < 2.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>

□ 다음으로, 도쿄전력 측이 어제(10.25)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0월 2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

○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(ℓ)당 700벵크렐(Bq) 미만\*으로 기록되었습니다.

\*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: <6.5 ~ <7.8 (검출하한치 미만)

□ 원전에서 3~10km 이내 해역에서는, 10월 23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.

○ 이 역시,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(ℓ)당 30벵크렐(Bq) 미만이었습니다.

\* 3~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: <6.9 (검출하한치 미만)

### < 3. 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사고 관련 >

-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(NRA)는 어제(10.25) ALPS 크로스 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작업을 하던 중, 작업자 5명에게 배관 세정수가 비산되었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.
  - \* 작업원 5명 모두 내부 피폭은 없었으며, 2명은 일정 수준 ( $4\text{Bq}/\text{cm}^2$ )이하까지 오염이 곤란하여 지역병원으로 이송
- 해당 사안은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,
  -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알려야 할 이상상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, 협력 차원에서 통보해온 내용입니다.
- 다만, 우리 측이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, 추가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.